

뚜껑 열어보니 러브스토리



베일 벗는 '미션 임파서블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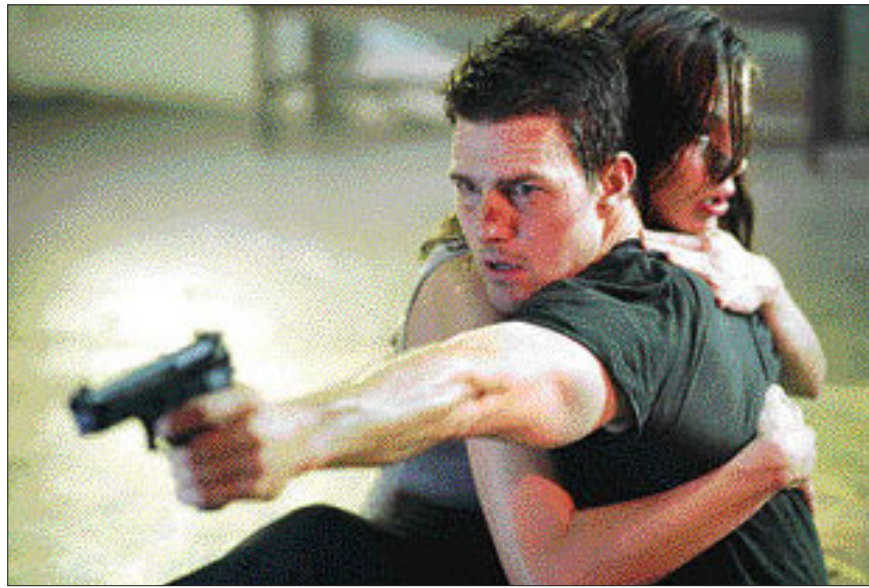
톰 크루즈 주연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3(이하 MI3)'가 드디어 개봉했다.

MI3는 올 한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포문을 여는 첫 작품답게 5~7일 황금의 연휴 기간, 대박중의 대박을 겨냥해 개봉했다. 연휴동안 톰 크루즈가 얼마만큼의 티켓 파워를 보이느냐에 따라 상반기 한국 영화가 휘어잡았던 국내시장에 일정한 판도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I3는 어떤 내용=개봉 전까지 2~3분 분량의 짧은 광고용 클립외에는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탓에 영화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만만치 않았다. 세계배급을 주관하는 파라마운트의 마케팅 전법으로서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이었던 셈.

뚜껑을 열어 보니 이번 3편은 액션과 스텔러의 분위기가 강했던 지난 1, 2편에 비해 톰 크루즈가 맡은 주인공 이단 헛트(미셸 모나한)란 여인과 약혼을 한 사이로 나온다. 극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동료 요원인 루더(빙 레임즈)의 반대와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헛트는 아예 줄리아와 결혼까지 감행해 버린다.

IMF(Impossible Mission Force)의 요원으로서 결혼은 인간생명에 꿈도 꿀 수 없는 일. 하지만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이단 헛트는 이제, 지난 1,2편과는 달리 현장 업무에서 빠져 요원 양성 교과으로 활동중



톰크루즈 '로맨스 가이'로 캐릭터 변신 첩보액션영화 틀만 유지하고 다 바꿔

이단 헛트에게 이젠 다 쓸데없는 얘기일 뿐이다. 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정이자 개인의 행복이다.

이단 헛트의 조지 보스 격인 머스(빌리 크루덱)이나 존 국장(로렌스 피쉬번)은 그에게 특하면 "국가를 위해서라면 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이단 헛트에게는 이제 다 쓸데없는 얘기일 뿐이다. 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정이자 개인의 행복이다.

이단 헛트는 이제, 지난 1,2편과는 달리 현장 업무에서 빠져 요원 양성 교과으로 활동중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연인 줄리아와의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헛트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은 암거래상 오펜 데이비안(필립 세이머 호프만)에 의해 헛트는 자신이 키운 요원 린지(캐리 러셀)가 살해당하고 그런 오펜을 쫓는 과정에서 헛트는 그만 사랑하는 연인 줄리아마저 납치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 줄리아의 목숨이 위태로운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을 앞두고 최정에 요원 이단 헛트와 세기의 악당 오펜 데이비안과의 한판 대결

이 펼쳐진다.

▲MI3는 가족영화=이번 3편의 메가폰을 잡은 J.J. 에이브러햄 감독은 TV시리즈 '로스트'의 연출자로 이름을 알린 인물. 1편의 브라이언 드 팔마, 2편의 오우삼 감독에 비해 명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전작들에 비해 가장 독특한 MI3를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첩보액션 영화였던 MI3를 틀만 유지하고 사실은 순애보의 러브스토리 혹은 가족영화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영화에서 이단 헛트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는 최고의 '로맨스 가이'로 변신한다. 이제 그가 지키는 것은 국가나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다. 아내가 될 여자와 그녀와 함께 꾸려 나갈 가정이다.

이단 헛트의 조지 보스 격인 머스(빌리 크루덱)이나 존 국장(로렌스 피쉬번)은 그에게 특하면 "국가를 위해서라면 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이단 헛트에게는 이제 다 쓸데없는 얘기일 뿐이다. 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정이자 개인의 행복이다.

'MI3'에 나타나는 가족주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조차 지금 미국사회의 변화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6년이 넘도록 부시정부가 내세우는 국가주의가 한물 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 'MI3'의 그 속의 톰 크루즈가 보여주는 가슴 시린 사랑이야기가 개봉 첫 주 관객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 낼지 극장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화전문기자 ohjdjin@hotmail.com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는 '제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즐기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객들로 붐볐다.

전주국제영화제 주말 관객 모으며 성황

전주 영화축제 가능성 봤다

지난달 27일 개막한 '제 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9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5일 폐막했다. 이번 전주 국제영화제는 개막작 '오프사이드'가 1시간 30분만에 매진된 것을 비롯, 영화마다 매진 열풍을 일으키며 또 한번 '성공영화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국에 따르면 영화제가 열린 첫 주에만 194편의 영화 중 72작품이 매진됐다. 점유율 81%(개막일 제외 75%), 유료 관객수도 예년에 비해 30% 정도 늘어난 3만7천300명에 달했다(4월 30일 기준). 29일 전북대 문화관에서 열렸던 '불면의 밤2-음악의 밤'은 1천500석이 매진되는 기록을 남겼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만의 축제라 아닌 전국 규모의 영화제로 거듭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제가 열린 고사동 일대를 찾은 외부인들을 통해서였다. 외국인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였고, 삼삼오오 모여 전주의 지도와 영화제 책자를 살펴보고 '영화축제'를 즐길 공리에 빠진 사람들도 많았다.

단순한 영화잔치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야외영화상영, 곳곳에서 열리는 인디밴드공연, 연극 등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는 축제 분위기였다. 대부분의 영화가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서 상영돼 관객 집중을 높이고, 동선을 줄여 최대한 영화를 많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팬들의 욕구도 충족시켰다. 지난달 28일 오전에 시스템 오류로 영화예매가 어려웠던 점 등을 제외하면 영화제의 질도 우수하다는 평이다. 디지털, 독립, 실험 영화를 표방해온 전주국제영화제가 '어렵다'는 평가를 넘고 관객과의 소통에 성공한 것. 가장 어려운 섹션으로 평가받는 '영화보다 낫다'는 매진을 기록한 것을 포함해 '디지털 삼인삼색' 등 국내의 단편영화와 실험영화를 관람하려는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의 유명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세계적 영화 평론가인 조너선 로젠버그, 감독 자파르 파니히, 배우 다케나가 나오오 등 해외 인사를 비롯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방은진, 배우 최민식, 안재모, 장미희, 오정해, 임권택 감독, 유현목 감독, 정진우 감독 등 영화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광주와 비슷한 시기에 영화제를 시작, 국내 7대 영화제 중 상위로 떠오른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은 2회 연속 최위위 영화제로 꼽히면서 좌초위기에 처한 광주국제영화제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전주=곽성진기자 ksj@kwangju.co.kr

영화배우 김승우의 인기가 요즘 다시 치솟고 있다. 그래서 흔히 그를 두고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됐다고 한다. 스스로도 요즘이야말로 "동방신기 스케줄"이라며 너스레를 떨 정도.

김승우는 얼마 전 TV시리즈 '내 인생의 스페셜'의 방영을 끝낸 데 이어 영화 세 편에 잇달아 출연하거나 출연중에 있다. 촬영을 끝낸 작품은 김해곤 감독의 데뷔작으로 장진영과 함께 호흡을 맞춘 '보고싶은 얼굴'과 국내 스타로는 처음으로 캐스팅돼 화제를 모았던 일본영화 '멋진 밤, 제게 주세요' 등 두편이다. 현재는 홍상수 감독의 신작 '해변의 여인'에서 고현정과 주연을 맡았다.



홍상수 감독 신작 '해변의 여인' 주연 맡은 김승우

해변으로 간 남자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러브스토리다. 한류 붐을 겨냥한 영화지만 상업영화보다는 예술영화에 가깝다. 거기서 난 운동선수다. 컬링 국가대표. 스포츠 스타이긴 한데

약간 한물 간 스타다. 나는 주로 한물 간 인생을 많이 맡는다. '보고싶은 얼굴'이라는 작품도 공금하다. ▲아내와 정부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

얘기다. 그렇고 그런 신과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 남자는 그들 사이에서 지독한 사랑을 경험한다. 특히 정부와의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그 지독한 열병이라는 게 뭔지, 사람들은 왜 어떤 상대에게 그렇게나 집착하게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영화다.

-지금 '해변의 여인'이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가 안돼 있다.

▲그런 나도 모른다. 홍상수 감독 영화는 촬영장에 가는 순간까지 그 누구도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아침에 촬영장 가서 감독님 어디 있다고 스태프들에게 물어보면, 저기서 집필중이라고 대답한다. 홍상수 감독은 정말 현장에서 그때그때 집필하고, 그때그때 얘기를 만든다.

-어떤 배역을 맡았나? ▲그런 얘기할 수 있겠다. 영화 속에서 고현정 씨는 내 후배의 애인이다. 근데 내가... 음-상상에 맡기겠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jdjin@hotmail.com

한국영화 삼파전 일단 '사생결단' 승

주말·연휴 흥행대결 결판날 듯

황정민, 류승범 주연의 '사생결단'이 한국영화 삼파전의 승자가 됐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주말 극장가에서는 '사생결단' '맨발의 기봉이' '도마뱀' 세 편의 한국영화가 앞 다퉈 개봉, 한국영화 흥행 삼파전의 구도를 보였다.

이 가운데 '사생결단'은 전국 약 81만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며 선두에 나섰다. '맨발의 기봉

이'는 62만명, '도마뱀'은 23만명선을 기록했다.

이번 삼파 대결에서 '사생결단'이 선두를 차지한 것이 이채롭지만 '도마뱀'의 탈락 또한 눈에 띄는 대목. 최고의 청춘스타급이자 실제 연인사이이기도 한 조승우-김혜경 커플의 주연작이 현실 시장에서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사생결단'이 이번 경쟁에서 승자가 되긴 했지만 진짜 흥행 대결은 '미션 임파서블 3'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본격적으로 개봉하는 이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붕·옥상을라브 우레탄폴 망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주)태양주력개발 TEL:0621 252-9606 / 252-8458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업/양도/임수

정확한 정보, 신속한 처리, 합리적인 가격

青碩 C&S TEL: 0512-0247-0 FAX: 0512-1067

어미이닝 효도상품은... **전립선** J2V

www.j2v.com

태진바이오메디칼 호남지사 ☎1588-3871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수석 합격자 배출!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전국 1위 합격률 1위

매월초 361-8111